

익산 춘포면 ‘봄나루문화센터’ 개관

동아리실·공유주방 등 교육·문화·복지 기능 갖춘 복합 공간…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익산시가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26일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봄나루문화센터’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봄나루문화센터는 연면적 559㎡ 규모로 △나눔카페 △다목적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공유주방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다.

다목적실에서는 탁구, 요가, 난타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동아리실은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운영된다. 공유주방은 나눔 행사 등 지역 먹거리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이다.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중심 기능을 확충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춘포면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019년부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봄나루문화센터 신축과 춘포역사공원 정비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형 농촌개발 실현을 위해 교육과 동아리 지원 등 주민 역량강화도 힘썼다. 교육으로 방송댄스, 바리스타, 집수리 교실, 정춘대학 등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전시관 및 관광안내관 구축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춘포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체감도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주한미군 조달시장 진출사업 설명회’ 개최

관내 150여개 기업 참여 ‘큰 호응’ … 해외진출 위한 실질적 정보 제공

군산시와 주한미군 411계약여단과 906계약지원대대가 공동 주최한 ‘주한미군 조달시장 진출사업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참석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약 150여 개 관내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미 조달청 사이트에서 입찰공고를 보는 방법, 실제 입찰하는 방법 등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특히 단순한 사업 설명을 넘어 미국 연방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준비

과정과 처리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기업인들은 큰 호응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주한미군 사업체등록 방법 및 입찰부터 계약까지의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주한미군 조달시장 진출 사업설명회’가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군산 지역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의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성장과 기회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 성당면 회선마을, 전통과 미래를 잇다

전북자치도 주관,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서 ‘최우수상’ 수상



익산시 성당면 회선마을이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운영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회선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제12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전북 지역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이뤄낸 마을 발전 사례를 발굴하고,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회선마을은 벼농사 공동 경작을 통한 안정적 마을 소득 창출과 전통문화 보존을 주민 주도로 실천하며, 협력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익산목발노래’를 계승하는 동아리 ‘고선지 목동’ 운영은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목발노래 1호 이수자인 이증수 이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 문화를 살리고, 이를 마을 정체성과 결합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었다.

이번 수상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거둔 값진 성과로 회선마을은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는 회선마을의 사례가 지역내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증수 회선마을 이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라며 “더 살기 좋고 단합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5년 군산시간여행축제’ 공식 협찬사 모집

군산시가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공식 협찬사를 오는 8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는 동시에 기업가치와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협찬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찬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02)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yaegj@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시의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이 가진 근대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축제로 풀어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작년에도 약 1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색다른 프로그램과 먹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정평이 나 있다. 외부적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축제’에 6년 연속 선정

되면서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명성을 빛내고 있다.

공식 협찬사는 언론홍보와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및 축제 공식계정 홍보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자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후원 규모에 따라 △은·오프라인 홍보 △행사장 내 광고 노출 △홍보부스 운영 △브랜드 데이 운영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한편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 송학동, 도시재생 활성화 ‘팔 걷어’

내달부터, 커피·원예 등 4개 자격증 과정 진행

익산시 송학동 주민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시재생 거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익산시는 송학동 푸른솔마을관리사 회적협동조합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조합의 자립 기반 및 운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 강좌에서 나아가 참여자들이 창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천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료생들은 자격증 취득 후 도시재생 거점인 푸른솔마을카페 및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일일강좌를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지역기관에 강사로 출강하며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자격증 교육은 △생활재생 아티지도사(7월 4일~9월 19일 매주 금요일) △아동미술 지도사(7월 4일~9월 19일 매주 금요일) △아동요리 1급 지도사(7월 16일~9월 3일 매주 수요일) △힐링 원예 지도사(7월 8일~10월 28일 매주 화요일) 과정이 운영된다.

교육 장소는 송학동 도시농업체험장(익산시 군익로 12길 22)이며, 교육 신청은 전화(010-7439-8819)를 통해 가능하다.

자격증을 취득한 수료생들은 푸른솔마을카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커피와 함께하는 원(Want)데이 클래스’와 도시농업체험장을 기반으로 반 ‘화수목(花·樹·木) 즐거운 원예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완료된 도시재생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단순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역량을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자격증 기반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립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전북 장애인체육회, 익산시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 익산에 모여 화합을 다진다.

익산시는 26~27일 이틀간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전북도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지도자 150명이 참석한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실무자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프로그램도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각 지회 간 연결망을 활성화하고, 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과 팀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조직 간 팀워크를 강화할 전망이다.

익산시장장애인체육회장인 정현을 시장은 “익산에서 시·군 장애인체육회 임직원과 지도자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KPGA 군산CC 오픈’ 기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군산시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KPGA 군산CC 오픈’에 맞춰 군산컨트리클럽(이하 ‘군산CC’)에서 군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군산 골프&리조트가 주최하는 ‘KPGA 군산CC 오픈’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시는 대회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클럽하우스 옆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 부스에서 참가 선수·가족·갤러리에게 군산의 우수 농수산물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장터에 참여한 농수산물 생산·가공업체 10개소가 딸기잼·떡·미숫가루·박대·훈어·꽃게장·김 등 5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방문객들은 군산의 우수 농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쪽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